2024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 심의 총평

ㅇ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ㅇ 회의일시 : 2024년 7월 21일(금) 13:00~17:00
ㅇ 회의장소 :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ㅇ 심의위원 명단(가다나순) : 권혜미, 김성량, 박영주, 박준영, 송현민, 심재민, 심정민, 오진이 (총 8인)

ㅇ지원 사업의 목적

해당 사업의 목적은 '원로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공연 참여'와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우수 문화예술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기초공연예술 분야의 원로예술인이 참여하는 공연을 지원함에 있습니다.

2024년에는 지원 형평성 개선을 위해 문예진흥기금 등 '중복 사업 신청 불가'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로예술인 참여를 보다 높이기 위해 '창작자 1인 이상'과 '실연자 30%이상' 참여를 필수 요건으로 도입하였습니다. 다만, 장르 특성상 실연이 어려운 '발레, 현대무용' 장르는 실연자 30% 미만의 경우도 접수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ㅇ사업의 심의 과정 및 심의 기준

올해의 심의 기준은 '사업지원의 타당성(50%)', '사업계획의 충실성(30%)', '수행단체의 역량(20%)'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공모 접수는 2024년 5월 8일(수)에서 24일(금)까지 16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신청접수 건은 총 148건(5,568백만원)으로 '신청 기준 미충족', '중복사업 신청' 및 '지원신청서 미제출' 등 사유로 총 14건이 행정결격 처리되었고, 최종적으로 134건에 대해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연극·뮤지컬 50건, 무용 11건, 음악 41건, 전통예술 30건, 다원 2건이 각각 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심의 운영에 관한 처리기준」과 국고 수탁사업의 특수성 및 통합심의를 고려하여 총 8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장르별 위원 총 4인, 문화예술일반(탈장르) 분야 중 원로예술인과 공연예술 전반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4인을 우선 순위로 각각 위촉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모든 위원들은 1차 심의로 전수검토제를 통해 제출 서류 전체를 검토하고 온라인 가채점 방식으로 채점을 진행하였습니다. 2차 심의는 현장에서 대면 종합토론 방식의 회의를 거쳐 장르간 조율과 의견을 나누었으며, '지역균형지원제'에 따른 지역 배분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지원 총액이 전년 대비 220백만원(23.7%) 감액되었기 때문에 당초 선발 가능 단체 수는 대략 19~20개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는 장르별로 가능한 지원건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여 그 결과 총 22개 단체를 선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단체별 지원 신청액의 일부 감액 조정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개별 지원신청서의 예산 내용과 사업내용 수준을 세심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지원금액을 조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음악 장르는 지원신청액이 평균 3천3백만원으로 타장르 대비 신청액이 낮은 점과 장르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장르 배분액 내에서 추가 단체 선정을 하지 않는 대신 신청액 자체를 지원하거나 극히 일부만 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선정된 22개 단체는 연극·뮤지컬 8건, 무용 3건, 음악 6건, 전통예술 5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역균형지원제(2024년 27.1%적용)를 적용하여 수도권 16건, 비수도권 6건의 최종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원분야는 2건이 접수되었으나, 심의위원회의 신중하고 다각적인 검토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미선정되었습니다.

ㅇ 심의 총평

심의위원회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을 여러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향유와 동시대성을 함께 성취해 낼 수 있는 작품들을 선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원로예술인의 구성, 중요도, 역할 비중' 을 중시하면서 '유의미한 창작품' 내지 '원로예술인의 기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공연'에 주목하였습니다.
그 결과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존 공연 또는 신규 창작물의 파급력을 가진 작품'을 선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우수한 구성력, 사업 수행을 위한 충분한 행정능력', '작품에 담긴 시대정신과 역사성', 서류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단체 운영 역량과 그 간의 활동',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 노하우와 인지도, 현저한 공로 등이 인정되는 원로예술인'이 참여하는 작품을 선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재공연의 경우, 기존과 다른 예술적 성취가 기대되는지와 함께 타 기관 중복 사업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오직 지원금만을 목적으로 급조된 공연이나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사업계획, 그리고 오랜 기간 활동이 없는 단체 등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업수행 능력과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원로예술인 참여의 타당성이 낮거나,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단체들도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6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로 선정권 내에서도 소수점 차이로 탈락과 선정이 갈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탈락된 단체들에 대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에 참여해주신 모든 공연예술인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선정된 단체들은 책임감을 갖고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의 취지에 맞게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멋진 공연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 심의위원 일동